

# 일선 연구실에서 보는 과학기술정책

글\_ 류재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ryujc@kist.re.kr

**봄** 기운이 완연하다. 파란 새싹이 조금씩 움틀거리고 저 울내내 추위 속의 묵련들도 연구단지내의 구석진 곳까지 부드러운 묵련꽃 향기를 모두에게 선사해주려는 듯 도톰한 꽃망울에 물이 오르며, 만물이 소생하고 봄기운이 곳곳에 스며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봄이 오고 있다.

필자는 과기논단을 통해,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맞아 우리 과학기술자들도 변해야한다는 취지의 “과학기술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과학기술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이 대폭 수렴되고 연구현장을 몸으로 이해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사고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에 다시금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재개편이라는 명목하에 과학기술계의 개편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높은 고위직을 지내신 어느 분은 신문지상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국민의 혈세를 언급하며, 출연연구소 중에는 없어져도 괜찮을 곳이 있으며, 이공계인력이 많이 배출됐지만 다 재목이 아니고 과학자 중 과연 몇 명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하고, 또한 과학자의 정년문제를 언급하며 연구 안하는 과학자의 퇴출을 이야기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매우 서글픈 현실인식이다.

과학기술진국도 배출된 이공계인력 모두가 다 재목이지는 아니다. 이공계를 나와 CEO가 되거나, 연구소장이나 장관이 된 사람만이 재목이지 않듯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등 이공계 전 분야에서 역할과 능력에 따라 각자의 맡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국제적으로도 좋은 논문을 내며 자기 전공분야에서는 인정받는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전, 현직 연구소 소장들이나 과학선진국의 수많은 과학자 모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일까? 과학기술이란 여러 분야의 과학자간의 부단한 경쟁과 협조로 수십 년간의 노력끝에 열매를 맺으며 그 중 어느 한 연구자가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밑받침하여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노벨상을 수상하신 일본의 한 과학자의 예만 보아도 노벨상 수상 이전에는, 그 분이 속한 기업에서 승진도 안 되며 일본국내에서조차 무슨 그리 큰 주목을 받아왔으며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하였는가? 아마도 우리나라의 평가나 관점에 의하면 벌써 퇴출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산업이나, 경제적인 논리로만 과학기술을 평가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학기술이 무슨 공장의 기계처럼 상품화될 물건을 평평 만들어 내야한다고 부르짖어왔던 자신들의 책임은 통감하지는 않고, 아직도 무조건 상업화가 되는 과학기술만이 필요한 과학기술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국가의 발전 전략상 상품화기술만을 강조하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원천기술같은 기초과학기술에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국민의식과 국가 R&D능력이 증대된 것이다. 과학기술의 본질을 과거의 논리로 보아서 안 될 것이며, 단기간내에 돈이나, 상업화가 되지 않는 과학기술도 인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려는 일선과학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이해해야한다. 시대도 변하여 박사학위에 대한 권위도 많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자 한 사람, 한사람은 수많은 각고의 노력끝에 연구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때로 그가 전공한 과학기술이 당장, 국가과학기술정책상 불필요(?)하다고 해서 또는 그때그때 각 부처별로 내놓는 연구과제에 적합한 연구테마가 아니라고 하여 현실적으로 유용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인류의 행복과 진리탐구라는 대명제하에서 지속되어온 학문의 일부분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듯 어쩔 수 없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의 벽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는 정책적 노력보다는, 과학기술자들의 무능과 그들 탓으로 몰아 “연구 안하는...”이란 모욕감과 자괴감을 유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필자가 있는 연구소에서는 매년 10여명이 넘는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연구비 조달의 어려움, 답답한 연구현실 등을 토로하며 연구소를 떠나고, 많은 연구자들이 떠날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교육계로 배출하는 것도 연구소의 순기능의 하나라는 아전인수격의 해석도 가능할지는 모르나, 그들 대부분이 한창 연구에 전념해야할 30, 40대의 젊은 연구자라는 점이 간과되는 듯 하다. 젊은 시절에는 연구에 전념하여 연륜과 경험을 갖추고 50, 60대에는 후학육성에 기여하는 시스템구축은 국가발전의 장기적 관점에서 과연 어려운 것일까?

과학기술정책에 회의를 가지는 일선연구자가 많다. 국가차원이란 미명하에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개편, 조정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평생연구만을 하는 과학자의 노후를 위한 과학연금도 없는 현실, 연구비에서 전기세,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을 내야하며, 자신의 급료는 물론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의 급료까지도 연구비를 통해 스스로 조달해야만 하는 정책 등등 ..., 이것이 현실이다. 또다시 지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 지금까지의 수많은 통폐합과 개편은 무엇이었으며 무슨 차이가 있으며,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그 당시의 정책입안은

누구의 책임이며, 계속 반복되는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일까?

정부는 목표제시와 방향, 관리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간섭과 제약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최선의 과학기술정책임을 깨달아야한다. 입안되는 과학기술정책에, 과연 우리 일선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한다. 일선연구실을 떠나 젊은 나이부터 어느새 직업자체가 행정과학자로 되어 평생 무슨무슨 정책, 평가기관의 행정기능, 정책기능부서만을 맴돌며 단기간의 실적에 급급하여 국가 연구개발정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행정과학자들에게도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입안, 평가등에는 일정수준이상의 논문, 특허등의 연구실적과 20년 이상의 일선 연구경험이 풍부한 일선과학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필히 ‘실명제’와 같은 시스템이 실시되어 되풀이되고 변화되는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하겠다.

우리 일선연구자 모두의 간절한 바람은 학자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유도 (Degree of Freedom)가 넓은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소박한 소망이다. 무엇보다도 일선과학자들을 위한 연구현장의 목소리, 일선과학자들의 소망을 반영하려는 부단한 정책적 접근과 신뢰증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하겠다. 아울러 아직도 과거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미래 발전이니 하는 포장된 정책에 일선 과학기술자들에게 “왜 내가 과학자가 되었나?” 하는 자괴감에 빠트리는 일이야말로 국가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어김없이 과학기술계의 재편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 애써 외면하고 말을 안 할 뿐 모두 허탈해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자긍심조차도 심어주지 못하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국민들에게 이공계로의 진학권유나 과학문화활동참여와 같은 이야기는 지금의 과학기술정책하에서 살아나가기에도 빠듯한 일선과학자들에게조차도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아닐까? 물론꽃 향기가 충만한 봄기운처럼 실험실을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바탕으로, 일선연구자들의 밝은 웃음과 끊임없는 노력에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져본다. ㉞